

지역 소식통

군산시, 군산공항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시동

군산시가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활동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켜다.

지방세법 108조에 따르면 항공기 재산세의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 지자체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구입비용, 기량, 항공기 크기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며, 청주와 양양 제주 등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선 지방세 세수 증가를 위해 정치장 등록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시는 제25회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군산시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정치장 등록 인센티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한 기지개를 쳤다.

이어서 개정안 이번 조례는 향후 새만금공항 개항에 맞춰 지원대상을 '군산공항'에서 '군산시 공항'으로 명시했으며 항공노선 신규 개설, 정치장 등록 시 항공기 정비료, 공항시설 사용자 등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와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군산=김관근기자】

정읍시·국네이버스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

정읍시는 사회복지법인 국네이비스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1월 개소하는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남권(정읍, 김제, 고창, 부안) 4개 시·군 사례관리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거점기관이다.

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1월 위탁운영 법인을 공모했다. 이후 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 적격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국네이비스를 선정했다.

국네이비스는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5년간 사무 위탁 운영관리를 맡아 확대받은 피해 아동의 치료, 확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확대 피해 가정 사례관리,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을 하게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동시시네마' 위탁 운영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이 2024년 1월부터 동시시네마를 위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시시네마는 2014년 개관을 시작으로 2개 상영관 89석(1관 58석, 2관 31석)을 갖추고 있다. 매점과 카페 분위기의 휴게공간도 있어 연간 약 3만여 명의 군민이 찾는 지역 내 여가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영화관람료는 7000원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영화 관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월에 열린 작은 영화관 기획전에서는 영화 13편을 무료 상영과 시네마 토크 등을 진행해 군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재단 관계자는 "영화를 관람하고 싶은 군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세계지질공원 조성 예산 확보

부안군, 지오디스커버리 센터 사업비 198억... 2024 준비·2025년 사업착공 목표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디스커버리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총 사업비 198억). 2024년부터 행정절차 및 시설설계를 준비하여 2025년 사업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프랑스 본부에서 개최된 제216회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를 통해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Jeonbuk West Coast Geopark)으로 지정 받았다. 부안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2019년부터 4년간의 본격적인 지질공원 인증 준비에 들어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획득하

여 국제적으로 지질·생태 자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안군은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질공원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지질공원 핵심 인프라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디스커버리센터 조성하고 부안군과 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디스커버리 센터에는 지질공원 전시·체험을 확장현실(Extended Reality)을 이용해 보다 현실감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지오북한문화공간

을 조성하여 지질뿐만 아니라 생태·문화를 연계하고 지역주민이 지질공원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성될 예정이다.

지오디스커버리센터는 부안 변산반도 격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다. 지질명소 체석강과 적벽강을 쉽게 접할 수 있어 교육, 체험, 포럼 등 지질공원과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여건과 관광 연계성이 최적화되어 있어 부안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수성1·장명지구 경계 이의신청 필지 재결정

정읍시, 토지분쟁 해소
토지 활용 가치 상승 기대

정읍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수성1지구와 장명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33필지에 대한 경계를 재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33필지 중 18필지는 인용, 15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다.

시는 60일 이내 불복 의사가 없을 시 경계를 확정,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촉박비용 등의 경감



과,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公信力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시행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부안군, 종합청렴도 전북 군부 1위 달성

정읍시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시는 부패방지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628곳에 대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 정읍시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상위인 2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이후 불과 2년 만에 3단계 수직 상승한 것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628곳에 대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4년 신년사

'더 위대한 군산' 이루는데 혼신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26만 군산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득 품은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청룡의 기운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활기찬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군산시의회는 군산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숨기쁘게 달려왔습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군산시의회의 23명 의원 모두가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당당히 나아가 새민정의 중심이 되고 전라북도를 하나로 만드는 선구자가 될 더 위대한 군산'을 이



루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본연의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늘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 활기차게 도약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로 청룡이 새로운 시작과 성장, 그리고 활력을 의미하는 것처럼 2024년 새해에는 우리 고창군과 군민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고 활기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 제9대 고창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창군의회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조차 놓치지 않기 위해 경청하며 힘 없이 달려왔으며, 민생 안정과 재난·재해 예방, 그리고 사회적 약자 돌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입법적, 재정적 뒷받침에 힘써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고창군의회는 군민께서 허락하신 4년이란 시간의 소



중함과 그 무게를 다시 되새기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을 견제와 협력 속에 지혜롭게 설정하고,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군민의 삶 속에 안정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고창군의회는 언제나 군민 여러분의 든든한 심부름꾼이자 대변자입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제대 고창군의회가 군민의 뜻을 받들어 성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늘, 군민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 쌍천 이영춘'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쌍천 이영춘 박사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 쌍천 이영춘'을 2024년 4월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영춘 박사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교수의 지도를 받아 탄생한 첫 의과박사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을 위해 농촌 보건위생에 평생을 바친 진정한 의료인이다.

이번 전시는 이영춘의 모교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동은의학박물관(관장 김세훈)과 공동기획한 전시로 농촌 보건위생의 선구자이자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준 이영춘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유품과 사진, 영상 자료를 전시한다.

전시는 총 5개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의사가 된 농민의 아들'에서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교사의 길을 걸은 이영춘이 의사가 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2부 '배앗긴 들에 찾아온 생물'에서는 일제강점기 소작농을 위해 군산에서 무료진료 활동하는 모습과 농촌

을 위한 연구소 설치에 노력하는 청년 이영춘의 모습을 보여준다. △3부 '농민의 의료나원'에서는 광복 이후 농촌에 남아 농민들과 함께한 이영춘이 농촌위생연구소와 병원 진료소를 설립하며 무지와 질병으로 너무 쉽게 죽음을 맞이하던 농민을 위해 치료와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알아본다. △4부 '흙을 밟는 별'에서는 6.25 한 국전쟁 전후의 농촌위생연구소의 모습과 병원에서 손을 떼고 로타리 활동과 정원이꾸기, 시에 등의 소임을 하다 별이 된 이영춘의 마지막 모습을 담았다.

△'에필로그'에서는 1960년 미국공보원(USIS)에서 농촌위생연구소 사업의 소개를 위해 제작한 [Mastery of Health] 일명 '한 농촌의 회고 영화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을 소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쌍천 이영춘 박사의 삶을 다시금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전시가 개관하기까지 이영춘 박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물들을 박물관에 기증해 주신 유족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시 근대역사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전시를 통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군산 시민들에게도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김관근기자】

부안군, 종합청렴도 전북 군부 1위 달성

부안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연속 2등급을 받아 전북지역 군단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청렴체감도(부패수준 측정 설문조사)와 청렴노력도(정당·정서평가)를 측정해 값에 부패심세를 차감해 등급을 결정했다.

군은 청렴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권익헌 부안군수가 단장이며 청백리(淸白吏) 추진단 회의체를 구성했다.

이는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앞장서 청렴시책을 발굴해 부서간·세대간 소통 마련 등 구성원의 호응을

고창군, 2023년 종무식... 새출발 다짐

고창군이 지난 29일 종무식을 열고 2023년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공군민들을 초청해 축하공연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했다.

농업발전유공으로 김정자씨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수상을 비롯해,

부안군, 2023년 종무식 개최

부안군은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권익헌 부안군수를 비롯해 4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종무식을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며 한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종무식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분야에서 노력한 군민과 직원에 대한 시상과 직원들의 송년 행사 권익헌 군수의 송년사, 직원들과 송년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송년행사 시간에는 직원들의 노고에 담긴 영상시청과 서로를 격려하는 직원의 노래, 그리고 이에 대한 권익헌 군수의 화답노래가 이어지는 감동과

고창군, 2023년 종무식 개최

고창군은 2023년 한해 동안 권익헌 군수는 "2023년 한해 동안 새로운 혁신과 미래 100년 부안데오와 시대 개막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2024년 한해에도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부안군의 성장동력을 위해 1000여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